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Strategist/Market Analyst 서상영 02) 3787-5241 ehdwl@kiwoom.com

주말에 발생한 이슈

중국, 제조업 PMI 7 개월 만에 확장세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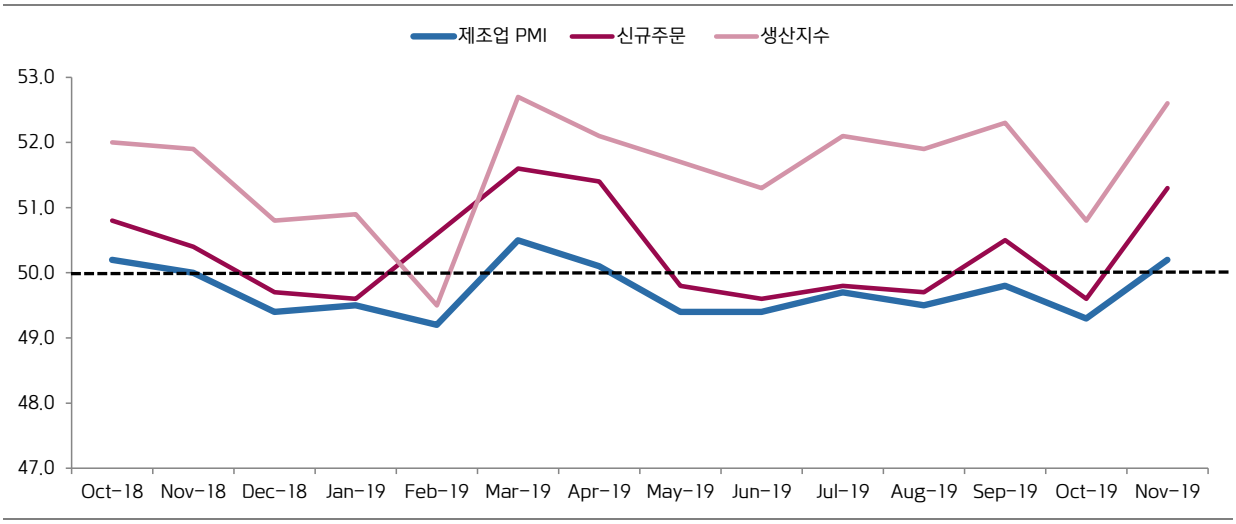
중국, 제조업 PMI

중국 통계국은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전월(49.3)이나 예상(49.5)를 상회한 50.2로 발표해 7개월만에 확장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미-중 '스몰딜' 합의가 구매관리자들의 심리 안정에 우호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해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개선 기대를 더욱 높였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생산 지수(50.8→52.6), 신규 주문 지수(49.6→51.3), 신규 수출 주문 지수(47.0→48.8), 구매량 지수(49.8→51.0), 수입 지수(46.9→49.8) 등 대부분이 증가해 지속적인 개선 기대를 높였다. 다만, 고용지수(47.3)은 전월과 같았고, 구매가격지수(50.4→49.0) 등은 부진했다. 한편, 비제조업 PMI도 전월(52.8)이나 예상(53.6)을 상회한 54.4로 발표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러한 개선세를 뒤로 하고 재차 위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는 12월 15일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막아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콩인권법'에 대한 대 미 제재 조치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제조업 PMI



출처: 중국 통계국,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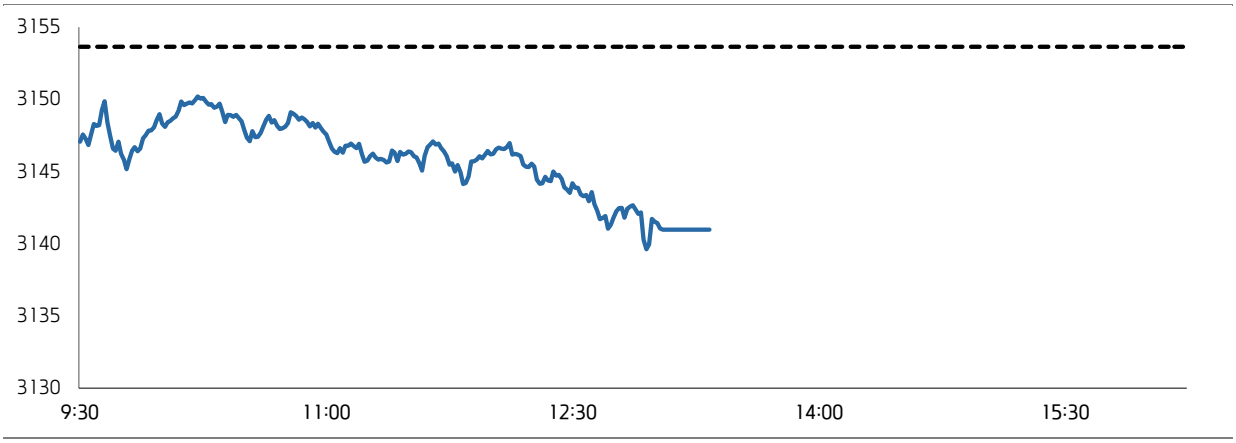
미국, 화웨이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 우려 부각

29일(금) 미 증시는 장 초반 '홍콩인권법'을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부각되자 하락 출발했다. 그런 가운데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폭을 확대하며 마감 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화웨이를 무역관련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미국 기술이 포함된 해외 일부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런 가운데 11월 중순 화웨이에 대한 판매 금지를 일부 허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29일(금) 미국 언론에 보도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회사에 대한 해외 선적을 방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규칙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주 화웨이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러한 보도는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왔다는 점을 감안 부담이 되었다. 다만, 관련 소식은 지난 26일(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S&P500 일중 차트



출처: 블룸버그,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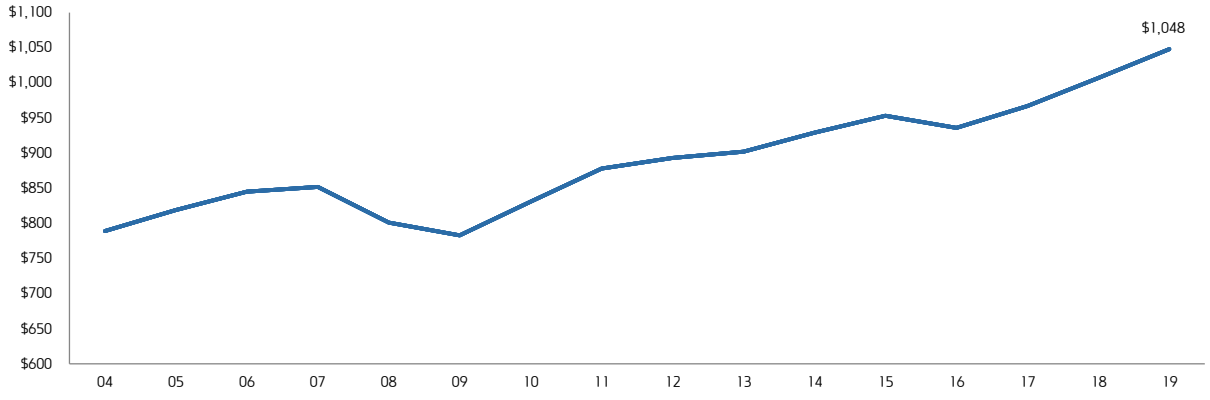
미국 추수감사절 매출 추이

미국 추수감사절 매출은 오프라인이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온라인은 급증 했다. 이는 눈폭풍 등 날씨의 영향과 여타 소매 유통 회사들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미리 시작 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미국 100대 소매업체 중 80개사의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Adobe Analytics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는 74억 달러로 추정치(75억 달러, yoy 20.5%)에 약간 못 미치는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추수감사절에는 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매장 방문 건수는 전년 대비 3% 감소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2.3% 증가했으나 블랙프라이데이 때에는 6.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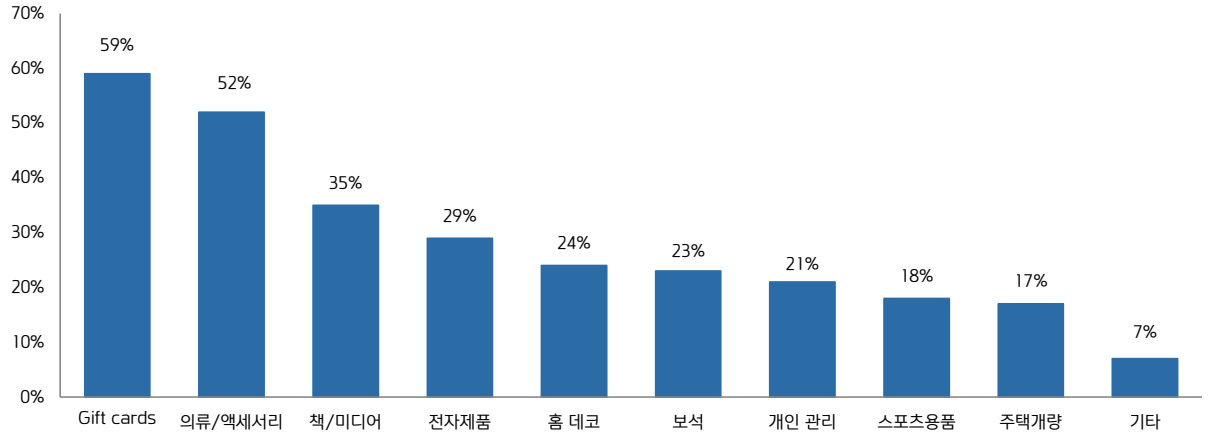
이를 감안하면 시장 예상과 달리 연말 쇼핑시즌 매출(yoy +4.0%)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판단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된다.

연말 쇼핑 시즌 지출 규모 예상



출처: 전미 소매협회, 키움증권

연말 쇼핑 시즌 지출 품목 예상



출처: 전미 소매협회, 키움증권